



하바-후 (Siva Bahu) 오녀曰「시-알리」(Sivali) 다公主-自身과子女의將來를論하야 獅子의出他 汗을올라서 所生을입고世間으로도라와살세 失戀 한獅子가世間에沒하야 作孽가其하되能히制禦者 가업드니「시-하바-후」가長成하기에미처서 獅子 를죽이고 祖父의귀를이어서「왕가」왕이된後 男妹 結婚하야長子「위자야」(Wijaya)를나섯다한다

「위자야」長成한後副王이되매 部下와의부러 國 法을제치고 國民을피령계함으로 王이累次責罰 하엿스나 終時改悔치아니함으로 畢竟王은民意를 드되어서 副王及其部下七百餘人을 海上으로放逐 하엿다 그리하야「一行은漂流하야」탐바파니 (Tambapanni)에上陸하야 夜叉族 (吾人은이夜叉族을當 島先住民族인「벵다」(Vedda)라함)을征服하고荒 蕪을開拓하야 新王國을세우고「위자야」왕이된後 南印度「마두라」(Madura)國王에게請하야 王女及 其外七百餘女子를마져서 七百從者와덕부러成婚케 하엿다한다

네로부터錫蘭의異名이不少하다 楞迦 (Lanka, 光 輝)라함은 印度人이最初에命名한것이니 이는本 島에寶珠가 多産함으로하여 只今도錫蘭人은이 名稱을恒用하며 寶洲나 寶落니하는것은 다楞迦 와語源을가리한것이오 楞迦人을 「싱할라」(Sinhala)라함은「싱하」(梵語Sinhala巴語Sinhala)即獅子를뜻하 다는뜻이고 楞迦를「싱할라두이과」(Sinhadwipa) 即錫蘭島라함은 前記「싱할라」島即獅子族國이라 는뜻이며 獅子口・獅子洲・僧伽羅・錫蘭山 (Sera diva, Serendib, Ceylon, Zeylan, Ceylon)라 함다 「싱할라・두이과」의轉訛다

「위자야」왕의年晚로되 後嗣업슴을念慮하야 使 者를本國에보내어서 그의甥姪를請하엿더니 甥姪 이오기전에王이죽으매 老臣이攝政으로一年間을지 내다가 甥姪「파-나두와스데-와」(Panduwasdeva) 가多數의部下를引率하고本國「랄-라」로부터入島 하야主位를어렸스며 그의長子「판두카-바야」(Panda kubhaya)王은아마明君이엇는듯하야 國都를「우파 뢰사」(Upatissa)로부터「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로옮기고 市區를整理하고 莊麗한宮廟를新 營하고 國憲을세우고 民利를大興하엿다傳하며 그의孫子가即天愛帝須王 (Devanampiyatissa)이니 佛

教의渡來는 正히天愛王時라 錫蘭島史는 이天 愛時即佛教渡來時로부터 多少明瞭한人代史期가비 못된다

以上은 本島根本史料인大史 (Mahavamsa)及島史 (Dipavansa)가傳하는 古代史話の大綱이다 錫蘭 의移民傳說은 此外에도數三種의異傳이잇스나 여 느것을勿論하고 或은佛本生에假託하고 或은鬼族 龍蛇等共의怪說로始作되야 부력대고미들것이못된 다 兩史料에依하면「위자야」가七百部下를引率하 고 錫蘭에上陸한年代를 西紀前五四三年으로잡엇 스나 그亦是正確한年代는아니다 想像된대「위자 야」의本國인「랄-라」가即摩竭陀即今日の北印度 라 獅子云云은 아마一姓族을指稱할일것이니 龍 族이라 無尾猿이라 獅子王朝라 孔雀王朝라하는 名稱이印度史에서 흔히듣는니름이니 北印度에잇 는今日の「시-하바-후」(Sihaputra)의 아마이獅子 族의原住인듯하다

如何間「싱할라」의先祖인「위자야」一派는 印度原住族이아니라 「印度아-리엔」의血統으로 帝王族 以下에屬한種族이되 그들이北印度에서移

佛 教 第 三 十 一 講

來하엿슴은 錫蘭語와「摩竭陀」(Magadha)의一地 方語로認定하는 巴利語와同腹之親이잇스며 梵語 及現明가-고語와 姊妹關係가 잇슴으로보아서도 可히信實할수잇거늘 하를며 偉大한藝術의所有者 인「印度아-리엔」이아니고는종도못낼만치 훌륭한 「아누라-다푸라」及 폴론나푸워 (Polonnaruwa)의 美術를가졌슴에서라

佛教徒의傳說에依하면「위자야」왕의本國에서 放 逐을當함은 王及王의徒黨이 婆羅門族에게反抗할 으로서라하니 錫蘭人이「印度아-리엔」의分派로 되 印度本土에서와가리 婆羅門族의優越權이업고 帝王族이 恒時特權을가게된史實에證하야 前記傳 說이幾分眞實을傳함인듯하다 그렇으로「위자야」 王 이本國을떠남은 印度社會制度에婆羅門族의特 權이確立한後 얼마큼지나서 婆羅門族의共한迫害 가 武士族의反抗을起케로되던時期일것이니 西 紀前五六世紀頃 印度各地에帝王族의勃興과同時期 일것이아다

如何間 獅子族이「印度아-리엔」의分裔로 元來 佛 教 第 三 十 一 講

야 豐饒한 天産의 利를 얻어서 二三世紀를 지나는데 동  
한에 相當한 國家를 建立하여 新宗教인 佛敎를 迎入  
하기에 足한 準備을 갖는 것이다.

### □ 傳 教 時 代

#### 入 教 的 傳 說

宗教心은 恒時無限思想을 隨傳한다 自己의 信하는  
宗教가 最眞最善最美요 그의 敎祖가 最聖의 人格者요  
無上의 神格者라고 믿을 뿐이라 開敎期까지도 信  
去時로 잡으라고 드나니 迦葉佛의 示迹說이 어  
찌 朝鮮에 만잇스며 金佛의 來化가 어찌 金剛山에 만  
限하랴 拘留孫陀佛(Karusandha)拘那含牟尼佛(Ka  
nagamuni)迦葉佛(Kassapa)의 過去三佛이 次第로 榜  
迎에 來化하였다는 前의 佛說로 부러 未來勤佛이  
此土에 來渡할 것까지 믿고 잇스며 釋尊께서 만하여도  
成道九個月後에 「켄라니아」(Kelanīya 在 西部州內)  
에 오시어서 夜叉族을 濟度하시고 그後에도 「나  
가디파」(Nagadīpa 現在 北部州內)에 오시어서 龍族(N  
aga)을 度化하시고 그後에 또 佛跡山(Sri Pada)에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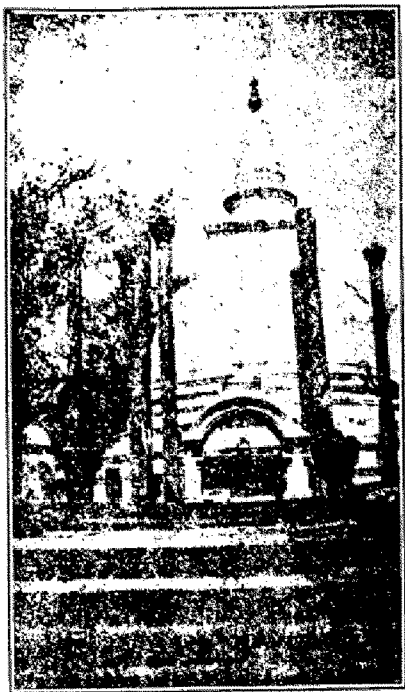
시어서 聖蹟을 남기시고 가시었다 하니 事實與否는  
알 수가 없스리라 그러나 이리까지 國土와 佛傳과  
의 因緣을 맺게 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眞摯한 歸依心은  
如干 金石의 破片이나 혹은 休紙 조각이 證明한다는 史  
實보다 감히 다할 것이 다.

#### 摩 晒 陀 長 老 的 開 教

大史及 島史에 依하면 佛滅後 二百三十六年만에 佛  
法이 此島에 들어오리라 함은 佛陁에서 豫言하신 바라  
한다 그러나 佛陁의 年代를 確定키 어려 운 日에야 奈  
何오 여러가지 史料를 綜合하여 보면 摩晒陀長老의  
入島는 天愛王의 即位後 얼마 아니 지나서 인 듯하다.  
王의 即位가 西紀前 二百五十年(大史에는 三百七年의  
라 하였으나 誤算)인 즉 摩長老의 入島即 佛敎始傳은  
西紀前 二五〇年이나 二五一年일 것이나 이때가 阿  
育大王의 大傳道期와 符合되는 바라 한다

阿育大王의 大傳道時에 王의 庶子(或傳王弟)摩  
晒陀(Mahinda)長老가 錫蘭傳道의 大命을 맡아 가지  
고 壹帝夷(Devīya)醜地夷(Utūya)跋陀多(Bhadra  
sala)參婆樓(Sambhā)四長老及 沙彌·優婆塞等을 引率

하고 逝瑟吒月(Jambhā 佛曆第六月)望日에 烏京  
인 「아누라다푸라」에 到着하여 狩獵中인 天愛王  
을 「미사카山」(Mihintale)下에서 만나서 遠來의 勞  
을 告한 즉 王은 크게 歡喜하여 侍臣으로 데리러 率先  
歸依하고 翌日에 摩長老를 宮中에 마  
져서 大法筵을 設  
세 王后及 宮女五  
百人이 歸依하고  
眉伽園(Meghavana  
)에 住한지 三日  
만에 二千五百人·  
七日만에 八千五  
百人의 信徒를 얻  
었다.



#### 佛 舍 利 的 奉 安

그後月餘를 지나서 天愛王이 長老를 爲하야 新營中  
이른 支提精舍가 竣成되매 摩長老는 新精舍로 移住하  
는 同日에 大臣阿栗陁(Amshala)及 王貴族五十五人

을 出家시키고 一夏를 지나는데 六十二阿羅漢을  
어떻게 한다.

그後 얼마 아니 지나서 阿栗陁를 印度에 보내어서 佛  
舍利를 奉來할새 王은 莊嚴한 儀式으로 奉迎하여 舍

利塔을 造成하니  
이것이 當島初有의  
塔婆라 今日에 이  
르는바 「쿠파라  
」마」(Thūparama  
塔園)舍利塔이 이  
것이요 佛陁에서  
入島하는 第四次  
(前三次는 「켄라니  
야」 「나가디파」  
及 佛跡山)이니 大

蓋佛滅後 二百三十六年에 釋尊의 第四次 入島로 佛骨을  
奉安하리라 함은 釋尊께서 豫言하신 바라 한다.

#### 比 丘 尼 團 成 立 及 聖 菩 提 樹

舍利塔을 모실새 天地가 瑞應하여 吉祥이 滿園



특대衆部는數三分派를가졌다하르래도 上座部는아  
 各分派하기에이르지아니하였는듯하며 假使分派의  
 연다하드래도 最初의分裂即有部가 갈려져거나  
 떨어져나 하였을것이다 아니라서 目連連子帝須가當時  
 印度上座部長老로 學德이一世를風靡하니만큼 그  
 의高足인摩訶陀長老도 師의學說을본파되었는것임으  
 로 錫蘭所傳佛敎는分派直前의上座部敎義의疑心  
 키어떨고同時에 上座部가 直弟子即長老(Mahā)  
 直傳인眞宗敎라고自稱하는이만큼 原始佛敎에가장  
 갓가운것일것이며 또그敎派의所傳인巴利現存三藏  
 이後日添付變改는多少있다하르래도 原始佛敎義를  
 比較的한히傳하는寶藏이라고볼수가있다.

그러나한가지注意할것은 同一한上座部系統이로  
 되 有部와雪山部가 다開祖를大迦葉으로세워됨에  
 不拘하고 錫蘭佛敎는優波離를開祖로하여 歷代傳  
 燈祖師가彼此判異不同한것이니 이는戒律을主로한  
 摩訶陀長老의獨特한 學風을받음이요 同時에當時  
 印度上座部가비동形式으로는分立되지아니하였드래  
 도 內部에異流가생겨서 各其所執을달리하여 分  
 裂의氣運이 正히圓熟한중에 長老는大命을가지고

印度를떠나서 錫蘭의新天地를얻게될을機會로 自  
 己의平素所執인毘尼中心主義를忘憚업시實現시키고  
 他流는本土에殘留하여 後日上座部諸派를形成한것  
 인듯하다 그림으로錫蘭佛敎는 上座部中에서도  
 가장嚴格한毘尼主義의表現이라고볼수가있다.

이가지錯亂스러운問題를 旅中에서論함은馬上  
 에서글쓰기와가라서能기어려우매 巴利三藏의  
 內容과한가지後期로미루는수밖제없다

興起時代

清貧한初期敎團

摩長老가聖敎를傳한지 六朔이못되야 舉國이佛  
 敎를崇奉하게되엇다함은 地方이좁음을말함보다도  
 摩長老의眞着한宣敎와 天愛王의眞誠시려운外護에  
 依함이라고하겠다 天愛王이在位한지十四年間一期  
 불으로지佛敎振興에마쳐서 各處에寺塔을이르키고  
 僧伽를奉養하였스며 더욱이摩長老의嚴格한戒律主  
 義는王家의外護가至極함에도不拘하고 敎團으로하  
 여극히清貧케하여 一切生活을信衆의喜捨에一任

하고一物도所有함이없섯스며 摩長老入寂(開敎後  
 二十四年) 然後에도阿栗陀以下諸僧이摩長老의主義  
 를體하여 三衣一鉢의比丘行으로 오로지敎法發展  
 에盡力하는外에餘念이없섯스며 西紀前二百五年頃  
 에婆羅門徒인南印度「대밀」國王「델라」라(Dhara)  
 가侵入하여約四十年間統治하였스나 別로佛敎를迫  
 害함이없섯다.

寺領의 開端

西紀前百六十一年에愛國家「두라가」마니(Duth  
 aganni)가義軍을이르키여서「대밀」族을驅逐하고  
 干이되야「위자야」王朝를恢復한後 그紀念事業으  
 로 七重天을模倣해서 青銅千柱殿을建築하고「루완  
 델라」(Ruwanelle)寶塔을成造하였스며 僧伽를保護  
 하는마음이至極한남어지에 前例에없는 廣漠한領  
 地와領民을僧伽에獻進하였스며 그의孫子인「와라  
 가」마니·아파야(Watthagamani Abhaya)왕이 第  
 二次來侵한「대밀」族을驅逐한紀念佛事로無畏山(A  
 bhayagiri)大寺塔을세우고 寺領地와領民을獻納하  
 였스니 兩王의護敎功德이큰지라 僧院史家들이極

筆稱功하였슴도 無理가아니다 그러나不幸이 摩  
 長老以來의清規를깨치고 領地法을내여서 後日敎  
 團墮落의一因을짓게하였슴은 一大遺憾이라 아니  
 할수없스니 大蓋所有主義와小乘毘尼와는兩立키어  
 려움으로써다.

二派分立

「와라가」마니·아파야「왕이無畏寺를세우고 크  
 게保護하며 大寺에서嫉妬를이르키어서 不和의兆徵  
 이보이든次 大寺에서擯斥한上座大帝須(Mahāsāsa)  
 들 無畏寺에迎入하며 兩寺의和合은 이것을導火線  
 으로公然히決裂되야 相交치아니할뿐이라 無畏山  
 에서는 毘尼藏最後部「波利婆羅」(Pārivāra)를後日  
 의添付한것이라하여 佛說이아님을提唱하니 問題  
 가律藏所關한만큼兩寺의爭論은 매우激烈하였는  
 듯하다 그리하여無畏山은畢竟大寺와分立하여 法  
 喜派(Dhammarūpa)라고自稱하니 이에서 大寺  
 派(Mahāvihāra)와法喜派가對立하게되야 錫蘭佛敎  
 는 二派로分立하게되엇다.

大 結 集

兩派分裂의 眞因을傳하는 아무文獻이업슴으로 무엇이라고 말할가 어려우나 推想컨대 大帝須가 擧斤을常한理由도 아마 波利婆羅兩品の 어느禁戒를犯한인듯하며 佛教가 渡來한以後 印度本土의 教團과連絡이안히지아나하야 每年數百僧侶가來往한貌樣인즉敢히 毘尼에插議한無畏山派中에는 大衆部思想을공용僧侶가潛在하였는듯하며 大帝須도비록大衆部僧侶는아니라하드래도 當時各派論爭이甚하든 印度本土에서 渡來한僧侶로 大寺部上座가되엇는듯하다 그러나아무리하여도言明할道理는없다 如何間이紛爭은 問題가 毘尼藏所關인만큼 重大한影響을 教界에주어서 教衆의信仰에까지큰動搖를匿起케하야 當時까지成文이업고 口口相傳하여오든三藏을成文으로結集할必要를늦기게하였다.

그리하여西紀前八十五年「왕타가」마니·아바야」王時에 大結集會를大寺에開催하고 所傳三藏全部를 巴利語로筆錄하였다하니 이것이成文三藏의嚆矢라하겠다 大蓋大聖入滅後第一雨期에王舍城에서 執行된 第一結集은經律藏의合誦이엇스며 佛滅後百年頃 毘舍離에서執行한 第二結集도 毘尼의複誦學이

고 成文結集이아닌은勿論이거니와 阿育王時(南傳佛滅後二百三十六年)에 華氏城에서結集되엇다 하는 第三結集도 三藏이가추기는하였다하드래도亦是成文은아니라 이는巴利三藏結集記文中에「昔日의賢者들은 口誦에依하야 三藏과註釋을傳하였스나 後來衆生中에 이를破損하는者가잇슴으로今日의佛徒는 信心을永世에傳기爲하야 이를典籍에記錄하노라」(大史)云云의一句가 그以前에具格한成文三藏이업슴을證言한이다.

南方教徒의信하는바에依하면現存巴利三藏이 即 이때에 結集된그대로 500年전에金口直說그대로라고金기동가지치미드나 前者를許할만한 根據가업거든 又况後者리오 金口의說도口口相傳數百年에不少한 添失이잇섯을것은多言을不要하거니와 摩長老가錫蘭에傳한以後에도 多少添加가잇섯는듯하니 嚴格한點에서 決코남지아니하는 錫蘭上座部로서敢히異疑를提唱한 毘尼藏最後部「波利婆羅」는 아마도 摩長老以後의添加라고볼수가잇다 律藏이 이미그러하지든餘他에서라 그러나 그리라고 現存巴利三藏의價値는 조곰도나러갈바가아니다 原始佛教

의一派인上座部所依三藏으로最古唯一한寶藏이라錫蘭教徒가巴利三藏을堅持保하야 今일에傳하는것만하여도決코남질바이업는큰貢獻이라고생각한다.

### 三 派 分 立

結集終了後三世紀에이르기까지 錫蘭島는內亂과 外侮가連하야「위자야」王朝가顛覆되고「람사칸나」(Lambakani) 族의諸王이統治하였스며 教團도兩部分裂後 論爭이不絶하야오든次二百十五年「보호」라帝須」(Vohara-tissa)王時에印度「舍竭」(Sagala)等地로부러 詭辯一派(Waitul or waitul)大乘系統? 가渡來하야 各種詭辯으로教義를紊亂케함으로 大寺部高僧提婆가 王權을비리서 이를禁壓하였스나 無畏山部의結託하야 暗暗裡에飛躍하더니 畢竟無畏山部急進派와한가지分立하야 律藏中「毘崩伽」大小二部까지後世의添付라하야 別派를세우고 大寺部相對로 滔滔히論追하니 此派가本來北印度舍竭(Sagala)市에서渡來하였슴으로 舍竭利伽派(Sagaliya) 日本姉崎博士의印度宗教史(?)中에는 이 Sagala를 Sagana(海洋)로意譯하야「海部」라고命名하였는듯하

나 誤譯인듯)라고니를하게되엇다. 그리하여 大寺와宿怨을가지無畏山部가此派와呼應하야大寺部를攻擊할세 그形勢 매우重大하야 王家까지影響을주엇는듯하야 王은「不合理한詭辯派(Waitul)의教義를採用하야 征服者의宗教를妨害한다」는理由로無畏山部高僧六十餘名을 印度로放逐하고 其派를壓迫하였다.

그러나 그後일마아니되야 印度로서渡來한學僧 僧伽密多(Sāghamita) 獻言으로 無畏山部の迫害를中止하고 僧伽密多是王子祇多帝須와摩訶世那의太子가되야 兩王子를가르칠세 前者는恒時僧伽密多의教義에不滿을가지고 後者가홀로師說에歸依하더니 祇多帝須(Jatthā-tissa, 267-277)가왕이되매 無畏山部를다시迫害하기始하야 僧伽密多로하여금印度로出發케하드니 그後摩訶世那(Mahāsana, 277-300)가即位하매僧伽密多를印度로부러迎人하야 大勢一變, 大寺部를크게壓迫하야 大寺及青銅千柱殿等 大部三百餘寺를破壞하고 其派僧侶를兩陸로放逐하고 布施를嚴禁하매 一時王領內에大寺部僧侶가絶影하였다.

이 過激한 處理와 本島 最古道場인 大寺의 破壞도 되어 民心을 激憤케 하여 大臣「메이가완나」(Meghwa) (兵力으로써 王을 脅迫하여 大寺를 恢復케 하고 前日放逐한 大寺部僧侶를 召還하며 各派不偏主義를 取하여 祇園寺塔을 新營하여 次王時에 竣工되매 舍竭利伽派의 本山으로 寄進하니 錫蘭佛敎는 自此로 下와 如히 三部本山이 鼎立하게 되었다.

- 大寺部 (Mahāvihāra) 大寺 (Maha Vihara)
- 法喜部 (Dhammicca) 無提寺 (Abhayagiri)
- 舍竭部 (Sagūlika) 祇園寺 (Jetavana)

### 聖齒의 奉安과 佛經의 翻譯

「메이가완나」王은 「聖齒一完」(Sri Mevan, 304-332)이라고 날키르나 만큼 明君이 었는 듯하여 內亂을 鎮定하고 外敵을 防禦하여 泰平의 基礎를 닦았으며 佛敎에도 不偏主義를 取하여 派爭을 鎮壓하고 爾後 四五世明君이 繼承하여 錫蘭島史의 黃金時代를 지었으며 佛敎도 治平의 機關라 隆興의 絕頂에 이르르게 되었다.

西紀三百十五年「메이가완나」王時에 印度「迦

伽」(Kalinika: Kalinai) 王女가 聖齒를 奉來하며 王은 佛齒精舍를 新築하고 聖齒를 奉安하였스며 「쉐라릿사」(Shelalissa I, 332-341) 二世는 雕刻家로 有名하였스며 「아누라」다 푸라」의 華麗는 王에 依하여 一層加色되었을 것이며 醫學에 通達한 「부다다」사」(Budhadasa: 佛奴: 341-370) 王은 阿育大王의 本을 바피서 施藥救病等의 救濟事業을 行하였스며 佛經을 錫蘭語로 翻譯하고 國史인 島史 (Dipavansa)를 編修하였나니 이 時代의 錫蘭文化와 佛敎의 隆興은 次 代 摩訶男王時에 來訪한 法顯三藏의 所記 (法顯傳·頻伽藏致六至七右)로 大綱 짐작 하려니와 今曰 「아누라」아 푸라」의 부서지고 남은 자취에서 서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別揭南國記同市部參照)

### 佛音論師의 入島와 佛典의 成集

摩訶男王 (Mahānāma, 421-434) 時代에 錫蘭은 二大訪客을 받되스니 一은 法顯三藏 (Fahian)의 요 一은 佛音論師 (Budhiyagha)다 前者는 當時佛敎의 狀況을 千古에 傳하여 今에서 錫蘭佛敎에 對하여 잊지 못할 人物이요 後者는 巴利佛典을 完成시킨 恩人이다.

佛音三藏은 元來佛陀伽耶 (Buddhagaya) 附近所生의 婆羅門學者로 當時高僧「레」와 大師「레와」(Revata)와 大論戰의 結果佛敎에 歸依하여 師를 조차 佛典을 研究하든 中 錫蘭에 摩訶陀註釋이 傳한다 함을 듣고 師의 命으로 入島하여 文籍의 寶庫인 大寺藏經閣 (Ganhangara Vihara)에 起居하면서 먼저 錫蘭語 (Sinhala-bhasa)를

研究하여 諍道論 (Vindimagan) 一篇을 著述하니 錫蘭人이 그의 廣博한 學識에 敬服되야 師를 再來 彌勒이라고까지 稱키었다 師는 繼續하여 三藏註釋 (Atthakatha)을 摩揭陀語 (Māgadhī-bhasa)의 文法에 依하여 巴利語 (Pāli-bhasa)로 譯述할새 善見律毘婆沙論 (Samantapāsādikā: 律藏註釋)과 吉祥悅意論 (Sumanāgāyāsīlānī: 長阿含註)과 斥破猶豫論 (Tapanasāloṇi: 中阿含註)과 顯揚真意論 (Saratthakasiṇi: 雜阿含註)과 滿足希求論 (Manorathapīṭhanī: 增一阿含註)等論을 編述하였스니 이 是 師가 序詩에 自著임을 明示하였거니와 其外에도 稱句學者 難陀般若 (Nandapanua) 師의 編

인 聖典史 (Gandhāvansa)에 依하면 折疑論 (Kantharai: 戒本註)과 眞諦論 (Paramatthakatha: 論藏註)과 其外의 雜誦集 (Kuddapūṭṭi)과 法句集 (Dhammapaṭṭa)과 諸

經要集 (Suttanipate)과 本生集 (Jataka) 및 譬喻集 (Aparisa)의 註釋도 論師의 所編이라고 한다.

錫蘭敎徒所傳에 依하면 論師의 註釋書가 摩訶陀長老의 註釋으로 大結集時收藏된 것을 巴利譯한 것 이라고 하나 摩長老의 錫蘭語註釋이 그 當時까지 完傳되었다고 固執할 수 업는 일이며 論師가 部分的으로 하고 或은 取擇하여 自主見으로 經을 상어서 編述한 것 일 것이니 論師가 錫蘭에 업는 註釋書를 달리 稱句에 依자가 서求하여다 參考한 辛苦한 事實은 이것을 證하기 에 足하다.

如何間論師의 功勞는 錫蘭佛敎에 있어서 摩長老의 大功을 繼하여 할만 큼 偉大하였나니 小乘佛敎의 巴利三藏及註釋이 完全히 集成되야 大乘佛敎의 漢文三藏과 한가지 佛敎文學의 二大金剛塔을 일우게 된 것은 專혀 論師의 功勞에 依한 것 이라고 하려다. (7)